

사랑하는 우간다 선교 동역자님들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인생과 사역의 여정이 중년에 접어들면 미래에 대한 꿈으로 마음이 분주해지기 보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며 추억과 묵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해 왔고, 때론 그 계획대로, 때론 계획과 다르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슴을 벅차게도 하고 좌절케도 했던 많은 일들..... 그 경험들이 모두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걸어온 걸음들의 뒤편길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성공과 실패로 보이는 일의 겉모양과 상관없이 그 일을 주관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 또 사역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기를 다짐해 봅니다.

케냐 테러사건과 그 여파

지난 9월,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은 케냐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전체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알샤바브는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중 하나로 소말리아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 우간다를 포함한 동부 아프리카에서 몇 차례 테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데, 금번 쇼핑몰 사건은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었던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테러사건 이후, 케냐정부는 케냐 거주 소말리아 난민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일종의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 재 테러에 대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러범의 일부가 우간다로 들어왔다는 정보와 더불어 우간다 역시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로서 테러 대상 우선순위로 지목된 상태인지라 우간다의 크고 작은 공공 장소에서 그 어느때 보다 보안 검색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지요. 지난 주말은 한 쇼핑몰을 대상으로 테러 경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그러하듯 알샤바브 역시 테러 경고를 허언으로만 그치는 법이 없어 테러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종강 예배



RTC (개혁 신학교) 소식

어느덧 2학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유독 오가는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었던 것은 우간다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신학교육 워킹숍'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신학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 몇 분과의 교제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신학교육의 절박성에 대한 도전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졸업한 미국 칼빈 신학 대학원 (Calvin Theological Seminary) 에서도 두 분의 교수님이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칼빈에서의 추억을 나누며, 한국, 미국, 아프리카의 언어, 문화, 신학 등의 다양성에 대해 즐겁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서양은 물론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신앙과 신학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빈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전하는 일은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항상 도전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사역입니다.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영적 교훈과 도전을 바탕으로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변화와 개혁의 씨앗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학기 말엔 항상 축제가 있는데, 올해 축제는 학생들의 흥과 열기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이 우간다뿐 아니라 인근 여러 나라 출신인 우리 학교의 특징을 살린 '다문화 페스티벌' 시간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 부룬디, 남수단 등 각 나라의 특징을 요약적이고도 코믹하게 발표하여 모두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축제 행사

내년에 학교로 돌아올 때 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학기의 학비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할 학생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을 체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금을 위해 목적 헌금을 해주신 분들의 도움을 힘입어 저희 가정에서 'servanthood scholarship' (섬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성 관리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의 사정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키우는 계기가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족 소식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예찬이가 올해의 끝자락인 12월 30일, 입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6개월 동안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신앙과 사회생활의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앞서 행하시며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입대 날짜가 정해지자 아내의 마음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걸음을 떼는 순간, 가족이 함께 있어 주지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부모의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찬이는 언제나처럼 걱정 말라며 씩씩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인도해 오신 주님의 손길을 굳 생활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원이는 내년 5월, 칼빈 대학 (Calvin College) 졸업을 앞두고 대학 마지막 학년의 캠퍼스 생활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찬양 활동에 여전히 열정을 쏟고 있고, 찬양 및 기타(guitar) 지도의 후진 양성(?)에도 시간을 나누며 선배의 위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은 대학 생활 동안 본인에게 보람되고 주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종강 후, 학생들의 감사의 축복 기도^^

기도 제목

1.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한 . 우 교류를 통해, 두 나라가 정치, 경제, 선교 등에 있어 건설적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2. 우간다 및 동아프리카가 알샤바브의 테러 활동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3. 동역하는 온나라 선교부 선교사들이 영육의 강건함과 좋은 팀워크를 통해 선교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4. 신학교를 섬기는 선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치지 않도록, 현지인 직원들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일하도록, 그리고 신학생들은 학문과 영성 훈련을 열정을 다해 감당하도록
5. 아내의 건강, 예찬이의 군 생활, 예원이의 보람찬 대학 생활, 저는 가정과 선교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